

환기팬, 그늘막 이용 온도 낮추면 사료섭취량 늘어

농 촌진흥청(이양호 청장)은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축사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. 우리나라는 여름철 가축의 상한 임계온도¹⁾인 27~30℃ 이상의 고온이 지속된다. 이런 환경에서는 가축 체온이 오르고 물을 마시는 양도 늘어난다. 반면, 사료섭취량은 줄어 결과적으로 증체량(체중증가량)이 줄고 번식 장애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. 가축의 체감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환기팬을 이용해 축사 내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한



축사 지붕 위 물 분사

다. 개방형 축사의 경우 창문이나 윈치커튼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. 강제 환



닭장(계사) 환기팬 설치

기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무창축사²⁾는 입기·배

표 1. 적정 온도와 상한 임계 온도

구분	닭
적정온도(℃)	16~24
상한임계온도(℃)	30

기 팬이 잘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한다.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풍속이 초속 2~3m 정도가 되도록 한다. 안개 분무 등을 이용해 미세입자의 물을 뿌려주면 가축의 체표면과 축사 내 온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. 그러나 축사 내 습도가 높아지고 폐수량이 느는 단점이 있으므로 환기팬과 함께 사용해 습도가 오르지 않도록 한다. 냉수 공급은 가축의 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사료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시설을 미리 점검해 둔다. 냉수 온도는 약 10~15℃가 가장 효과적이며, 냉수가 없을 경우 지하수(약 16~17℃)를 바로 급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.

각 축종별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(lib.rda.go.kr)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‘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고온기 가축 및 축사관리 기술서(2010)’를 검색하면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.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운 축산환경과장은 “여름철 가축피해는 고온 저감 시설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축사 형태와 여건에 맞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” 라고 말했다. **양계**

1) 가축이 체온조절을 위하여 화학적 조절작용을 필요로 하는 온도의 한계
2) 창이 없는 밀폐식 축사